



5월의 추억 만들기 5월의 마지막 휴일인 25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 풍암저수지에서 산책을 나온 부녀(父女)가 만개한 장미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해경이 없다면 바다는 누가 지킵니까”

해경 해체 소식에 목포지역 유자망 어민들 긴 한숨

서해상 중국 어선 ‘씩쓸이 조업’ 눈뜨고 봐야 할 판

“해경이 없는 바다라니요. 그럼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은 누가 나포한다 말입니까.”

해양경찰청 해체 소식을 담은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나오지 일주일이지난 25일 목포지역 근해유자망협회 소속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의 횡포를 전혀 모르는 조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연초부터 흉도, 가거도 등 흑산도 일대에서 유자망 어선을 이용해 참조기를 잡아올리는 이들 어민들은 참조기 산란기로 인한 금어기(5월1일~8월10일)를 제외하고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넘어선 불법조업 중국

어선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 현장에 해경 함정과 인력이 총동원돼 있기 때문에 중국 어선이 보란듯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해도 전혀 단속을 못하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로부터 지난 23일까지 불법 조업중이던 중국어선을 나포한 건수는 단 1척 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나포 건수 27척과 비교해 보면 우리 영해 수호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참조기 산란기를 맞아 우리측 유자망어선 조업금지 기간(8월10일까지)에 접어들었지만, 중국 어

선들은 다음달 1일 정오까지 조업이 허가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흑산면 가거도와 흉도 연안까지 나타나 산란기에 접어든 조기를씩쓸이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들에 따르면, 불법조업 중국 어선들은 그물코가 좁아 크기와 종류에 관계없이 물고기를 거둬 올리고, 조업 기간에는 우리 어선들이 설치한 그물까지 마구잡이로 가로채가고 있다. 특히 중국 어선들은 총칼을 휴대하고 때로 물러다니며 불법 조업에 나서고 있어, 이를 단속하는 해경까지도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흉폭해져 어민들은 감히 대항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 어민들은 해경이 바다를 지키고 있어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이 해경 해체 결정은 너무 성급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는, 오는 6월까지 해경을 해체하고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각각 이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 경비를 맡는 국가안전처는 수사권이 없어 불법 조업중인 중국 어선들에 대해 나포, 수사 등 효과적 단속이 어렵고, 분산된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까지는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수적이라는 해양전문가들과 어민들의 판단이다. 근해유자망협회 이지배(56·목포시) 목포 지회장은 “수사와 경비 업무가 일원화된 상황에서 무기를 소지한 해경도 흉포화된 불법 중국 어선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갑자기 해경을 해체하고 권한마저 이리저리 찢어버린다면 서해 바다는 불법 중국 어선들의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2 몰림 03:34
해질 19:37 달림 17:09

‘오후에 비 온 뒤 갬’

당분간 맑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18/26	보성	비	18/28
목포	비	17/24	순천	비	19/27
여수	비	19/27	영광	비	17/25
나주	비	17/26	진도	비	18/25
완도	비	18/27	전주	비	18/27
구례	비	18/27	군산	비	16/24
강진	비	18/27	남원	비	17/27
해남	비	17/26	흑산도	구름많음	16/22
장성	비	17/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서~서	0.5~1.5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남서~서	1.5~2.5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남서~서	1.0~2.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남서~서	2.0~3.0	서~북서	1.5~2.5

◇생활지수

식중독	62
운동	20
빨래	20

◇물때

	밀물	썰물
목포	00:07	05:29
	12:19	17:43
여수	07:20	01:07
	19:51	13:20

◇주간 날씨

27(화)	28(수)	29(목)	30(금)	31(토)	6/1(일)	2(월)
☀	☀	☀	☀	☀	☀	☀
15/29	15/29	15/29	15/30	15/30	16/29	16/29

올 여름 광주·전남 ‘게릴라성 폭우’ 잦다

올 여름 광주·전남 지역에는 짧은 기간, 특정 지역에만 비가 집중되는 ‘게릴라성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초여름 더위는 다음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5일 ‘여름철 기상 전망’을 통해 “6월 기온은 평년보다 더 높은 날이 많겠으며 한 여름인 7~8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최근 3~4년 지속됐던 기록적인 폭염은 없을 것”이라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올 여름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엘니뇨현상’ 때문에 최근 여름마다 찾아온 찜통 더위와 폭염과 열대야 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한반도에 폭풍 짙는 듯한 폭염을 몰고 오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약해진다 는 게 기상청의 설명이다. 과거 엘니뇨가 북철과 여름철에 발생한 경우, 폭염을 동반하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서쪽으로 확장하지 못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세월호 수색 ‘무인로봇’ 한달만에 재투입

나흘째 수색 성과 없어

침몰한 ‘세월호’ 내부 수색을 위해 투입됐다가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했던 ‘무인로봇’인 원격수중탐색장비(ROV·Remotely-Operated Vehicle)가 한 달 만에 또다시 투입된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진도 군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수색·구조 지원 장비·기술 연구 전담반(TF)이 지난 24일 수색 현장 바지선에 찾아가 잠수사들과 협의한 결과 잠수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조기 이후 ROV 투입, 활용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지난달 21일 미국 민간업체인 비디오레이(VIDEO RAY)가 보유한 ROV 2대와 운용 인력 7명을 동원해 선체 투입을 시도했으나 거센 조류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 대책본부는 당시 수상의 관측함과 무인로봇 본체를 잇는 6mm 굵기의 조종케이블이 거센 조류에 휩쓸리면서 조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조종케이블을 두꺼운 고무 호스로 감싸서 조류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보완했다고 해도 통로 진입 과정에서 줄이 자주 끊이거나 가이드라인과 얽힐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협의에서는 실종자 가족 등의 시장애물로 수색이 어려운 구역의 선체 외관 일부를 절단하는 방안과 현장 요구 시민간 잠수사 확보·지원, 양 바지선에 의사 재배치 추진 등도 결정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 40일째인 이날까지 나흘째 수색에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실종자 숫자는 여전히 16명에서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

피해어민·어선 지원금 지급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전남도가 피해어민 및 구조활동 참여 어선에 대해 지원금을 첫 지급했다. 전남도는 25일 “최근 국비 13억5700만 원을 지원받아 동·서거제도, 맹골도 어업인 132세대에 세대당 85만3400원씩 1억 1300만원, 구조·수색참여 어선 108척에 1억4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는 나머지 피해어민 1458세대와 참여어선 125척에 미지급된 생활안전자금과 지원금을 조기 집행하고, 기름유출 인근 양식어장, 맨손어업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세월호 참사’ 전남대 등 전국 대학 교수 잇단 시국 성명

전국의 대학교수들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안병영 교수 등 대구대 교수 45명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참사의 슬픔을 보듬고 공동체적 가치를 회복하자”고 제안했다. 교수들은 “참사 원인은 물론 사고 수습 과정과 관련된 모든 진상을 한 치의 흠도 남김없이 밝힌 뒤 책임자를 처벌하고 인적 쇄신 등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무능한 국가운영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호도하지 말고 한 점의

혹 없이 그 진상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역사적 평가를 존중하지 않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라며 “그러한 정부 앞에는 국민적 저항과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주대 민교협은 “정부는 잘못된 관행과 체계에서 비롯된 적폐를 도려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제도화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제주교수네트워크와 강원대 교수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형대어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형대어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두레주류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시범사업 선정!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광주빛고을 스포츠클럽은 건전한 여가와 생활체육의 활성화 레저문화보급을 위해 설립된 주민편의 스포츠클럽입니다.

모집대상: 광주시민 누구나

연령별 맞춤형 종합 스포츠 클럽 운영 회원 선착순 모집

종목	요일	시간	장소	종목	요일	시간	장소
탁구	월, 수	오전 10시-12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요가	월, 수, 금	오후 4시-5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오후 2시-6시			월, 수, 금	오전 9시 30분-12시 30분	호반베르디움휘트니스
	화, 목	오전 10시-12시		화, 목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고실대권도장	
	오후 2시-6시	화, 목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고실대권도장		
수, 금	오전 10시-12시	동림다목적체육관	건강댄스	월, 수, 금	오후 3시-4시	동림다목적체육관	
	오후 2시-6시		농구(유소년)	화, 목	오후 5시 30분-6시 30분	동림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	월, 수	오전 10시-12시	동림다목적체육관	풋살(유소년)	금	오후 5시 30분-6시 30분	동림다목적체육관
		오후 2시-6시			토, 일	오후 3시-5시	북구종합체육관
		아간 7시-9시			토, 일	오후 3시-6시	북구종합체육관
월, 금	아간 7시-9시	신항중학교 강당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200번지(구 동림동 10-1번지) 다목적체육관
TEL. (062)714-2002 분선27, 승정29, 용암16, 송암72, 수안12, 운림51, 학단92